

##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서 동 육
제 목	평생학습, 잠재력의 바다		
<p>나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지만 예전에는 전기 공학도였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 대 나는 전기공학에 큰 관심이 없었다. 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진학한 공과대학은 나에게 꽤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 반강제로 응시하여 취득한 전기 관련 자격증들은 책상 서랍 안에 방치되어 빛도 보지 못한 채 시들어갔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그 시절 학습한 내용과 자격증들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과는 절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이유는 다시 수능시험을 치른 후 교육대학교에 합격하여 진로가 초등 교사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p> <p>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 선 후 반 학생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던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5학년 학생들의 급식을 지도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급식은 학생들을 자리를 먼저 배치시키고 담임 교사는 가장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편식 없이 골고루 식사를 하였는지 검사를 한 후 교실로 올려 보낸다. 띄엄띄엄 우리 반 학생들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그때 저 멀리서 이미 올라간 학생들 한 무리가 나에게 뛰어오고 있었다.</p> <p>“선생님! 큰일 났어요! 승희(가명)가 지금 교실에 쓰러져 있어요!”</p> <p>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식사하던 식 판을 내던지고 4층에 위치한 교실로 아이들과 같이 달려갔다. 계단을 한 걸음에 두세 개씩 오르면서 도착한 교실에서 본 승희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걱정이 된 주변 아이들은 승희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몸을 흔들고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p> <p>주변 학생들이 승희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 승희의 목이 꺾이지 않도록 보호한 채로 보건실로 이동했다. 보건선생님과 협력하여 침상에 눕힌 후 열을 재어보니 정상 체온보다 한참 높은 상태였다. 몸이 불덩이 같았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 119에 신고를 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와 몸에 대어주었다. 그리고 보건선생님의 도움으로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온몸이 경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혀를 깨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건을 입에 물려주었다. 발작이 갈수록 심해져서 주변의 물건들 중 넘어져서 다칠 위험</p>			

이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웠다.

나는 지금도 종종 발작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승희의 표정이 생생히 떠오르곤 한다. 그렇게 나는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승희의 체온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승희는 응급실에 가서도 1시간이나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이상이나 후유증 없이 승희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열성경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이 마무리된 후 나는 상념에 잠겼다. 그나마 방학 때 이수해둔 응급처치 연수가 도움이 되어 덜 당황한 채로 대처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지하고 사전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수백 번 나에게 던진 끝에 결국 나는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교사도 직장인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이지만 퇴근 이후의 학습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래서 주말에 학습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특수 목적 대학원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방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안전에 관한 대학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많은 고민과 검색 끝에 대학원을 하나 정하여 입학원서를 넣었다. 학비는 꽤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등록을 했다.

입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날. 대학원 원우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안전 관련 대학원이라서 그런지 소방관분들이 주로 오셨고 경찰과 검찰에 근무하는 분도 계셨다. 그리고 보안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다. 내 차례가 되어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안전교육에 관심이 많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을 학습을 하고 그것을 교육과 접목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놀라는 눈치였다. 이 대학원에 교사는 나 혼자였고 지금까지 교사가 안전 관련 대학원에 오는 사례도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나의 초보 석사과정이 시작되었다. 인간과

재난, 재난관리론 등등 수업을 들을 때마다 너무도 재미있었다. 소방지휘론 수업을 들으면 소방과 관련이 없는 내가 마치 재난현장을 지휘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며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 보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세상의 통과이레 같은 거였다. 그 통과이레는 바로 국가공인 안전자격증 취득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유일한 자격이 있는데 바로 소방안전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이다. 이 자격은 소방서의 예방안전과에 근무하시는 소방관분들이 주로 취득하는데 교사가 이것을 취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렇게 소방안전교육사 수험 교재를 구입해서 퇴근 후 매일 공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학원 공부와 과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퇴근만 하면 식탁에 앉아 공부하는 나를 와이프는 오히려 응원해 주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후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시험을 치르러 갔다. 숙소에서 시험 치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1차 합격 2차 탈락. 1차의 소방학개론과 응급처치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결과 2차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응급구조사분들도 어려워하는 응급처치론을 교사가 합격하고자 하니 1 차 통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아쉬운 마음으로 1년 동안 다시 준비하여 2차 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다! 대학원과 안전교육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 나면서 나는 동기부여를 받고 있었다. 주말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다양한 분야의 안전전문인력들과 토론하며 학습하는 이런 기회가 내 평생 언제 올 것인가?

이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나는 안전역량을 학생들에게 투입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학생들과 불조심어린이마당이라는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다. 불조심어린이 마당은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에서 주최하며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대회로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대회였다. 전국에서 2만여 명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도전하는 대회로 현재까지는 26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에서 배운 것과 대학원에서 만난 소방관분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학생들은 6개월 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마침내 대회 당일. 학생들은 내가 지도한 대로 차분하게 대회를 치렀고 대회 첫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경남 도 지역 2위를 차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나는 석사학위 취득을 하였다.

학생들과 나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이것을 두고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나는 아이들을 통해 배웠다. 내가 일하는 현장과 상아탑과의 교류. 그 교류의 결과물은 나의 일터에 적용되고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평생학습의 모토(motto)일 것이다.

나는 소위 식탁 위 평생학습을 시작하면서 그런 성장을 수시로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소속 교육청 직속 안전교육기관에서 나의 존재를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해왔다. 교육청에서 만든 학생안전체험 교육원에서 안전교육의 체계화를 꾀하고 있었고 교사인 동시에 안전을 전공한 나는 그 기관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나의 검토를 거쳐 안전교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기관의 여러 안전 사업들이 나의 손을 거쳐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소방안전교육사 취득을 도와주는 서적을 편 저하기도 했다. 소방관분들이 교육학적 부분에서 막혀서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학습에 대한 갈증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자격은 모두 취득을 한 것 같았고 교원 중에 희소한 안전 관련 석사학위까지 받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안전관련 국제자격은 없을까?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참을 찾아본 결과 국제안전자격으로 미국 NAFI에서 발급한 공인화재폭발조사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자격은 국내 약 300명 정도만 보유한 희소한 자격으로 법정 증언의 효력이 있으며 화재감식 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분들이 간혹 취득하는 자격이다. 교사가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응시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릴 적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들었던 전공과목과 취득한 자격증들이 응시 자격요건 충족에 큰 기여를 한 것이었다. 전기는 소방 및 화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이었다. 당신께서 공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쓰임이 있다고 하신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나는 본격적으로 미국 공인화재폭발조사관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교재가 영어로 되어있었고 나는 퇴근 후 하루에 4시간씩 학습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반 학생들은 작년 선배들을 이어 경남 제패를 목표로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2년째 이어지는 교학상장이었다. 너무 신이 났다. 내가 학습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일인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아주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킨 우리 반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익힌 안전역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나의 화재폭발조사관 시험과 학생들의 안전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미국 화재폭발 조사관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몇 번의 연기 끝에 치러졌고 나는 최선을 다해 응시하였다. 그 다음은 아이들의 차례였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뒤를 잇겠 노라 다짐하며 모든 것을 대회 준비에 다 쏟아붓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힘든 줄도 몰랐다. 하지만 나의 몸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다. 대회를 코앞에 앞두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나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지럼증이 심했다. 알고 보니 저 혈당 증세였고 혈당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였다.

수시로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별거 아니겠지 생각만 했었다.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충격이 좀 컸다. 하지만 대회가 코앞이라서 몸을 추스를 시간은 없었다. 그렇게 나의 학생들은 모든 것을 불살랐고 지도한 대로 대회를 차분하게 치렀다.

대회 결과 발표일 오후. 나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나도 간사한 어른인지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강조하였지만 아주 작은 결과라도 나와서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랐다. 대회 홈페이지에 결과가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그 결과를 대번에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면지를 접은 후 화면을 가린 채 떨리는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종이를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다. 수상학급의 명단 윗부분 글씨가 나타나고 있었다.

‘엇..?!!! 이럴 수가..!!!’

가장 위 칸에 익숙한 학교 이름과 반이 적혀 있었다. 제20회 불조심어린이마당  
1위 대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경남 관동 초 5학년 7반 지도교사 서동욱  
2위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

학생들과 같이 뿔 8개월간의 레이스가 주마등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목이 매여왔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축하한다. 너희가 전국 1위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구나”

남학생들의 격한 환호성 속에 여학생 몇 명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미국 NAFI에서 메일이 날아왔다. 미국 공인화재 폭발조사관에 합격한 것이다. 주최 기관 측에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학교원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원이 이 자격을 취득한 사례는 없었다. 교원 최초였다.

얼마 전 저녁 7시 뉴스로 접한 경남 합천의 안전체험관 건립. 경남소방본부에서 건립을 추진하여 올해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나는 그 안전체험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초등학생의 입장에 서서 초등 교사를 대표하여 자문하였다. 그리고 광주소방학교의 외래강사로 위촉되어 소방관들의 소방안전교육사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처럼 지역 유관 기관에 내가 같고 닮은 역량이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보람은 나에게 평생학습의 원동력이 된다. 퇴근하고 쉬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주며 주말마다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가족의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학습의 길을 가려 하는 이유는 학습을 통해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에 무한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최근에는 학점은행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당신에 의해 반강제로 시작하게 된 전기공학사 학위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취득하고자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약 8과목 정도만 더 이수하면 공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지닌 채 공학사 학위 취득에 도전하는 괴짜 선생님.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걷어가는 나는 평생 공부할 팔자인가 보다.